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1년 10월 10일(주일) 제1363호



사진은 지난 2018년 러브소나타 후쿠오카.

러브소나타 야마가타 10월 27~28일

서빙고 본당, 야마긴현민홀 이원생중계
10월 25일부터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

러브소나타 야마가타가 '당신도 당신 가족도'를 주제로 10월 27일과 28일 막 오른다.

교회부흥세미나는 10월 27일(수) 오전 9시 30분 야마긴현민홀 스튜디오1, 가스펠나이트 오후 7시 야마긴현민홀 대홀, 리더십포럼 28일(목) 오전 11시 팔레스그란델 호텔, 러브소나타 야마가타 집회는 오후 7시 야마긴현민홀 대홀과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열린다. 교회부흥세미나, 가스펠나이트, 리더십포럼은 일본어, 러브소나타 집회는 한국어 통역이 지원된다. 집회실황은 온누리교회와 러브소나타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한다.

10월 27일 교회부흥세미나에서는 박종길 목사 '예수님이 꿈꾸는 교회', 김경훈 집사(구글

코리아 디렉터) '코로나 이후 사회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김하중 장로 '고난을 이기는 기도'를 주제로 강의한다.

러브소나타 전야제 '가스펠 나이트'에는 야마가타 출신 크리스천 예술가들이 출연하고, 사토 아키라 목사(후쿠시마 제일성서침례교회)가 '광야의 길'을 주제로 설교할 예정이다.

러브소나타 야마가타 집회는 야마긴현민홀 대홀과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이원생중계로 진행된다. 소프라노 김영미, 기타리스트 안토니오 코가, ABC-Tokyo 발레단, 플루트 연주자 송솔나무, 샌드애니메이션 박진아 작가 등이 게스트로 출연하고, 메시지는 이재훈 담임목사가 전한다.

러브소나타 야마가타에 참석하고 싶은 성도들은 10월 25일(월)부터 온누리교회 홈페이지 '예배참석 예약시스템'이나 '온누리교회 예배예약 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봉사자도 모집한다. 봉사자들은 중보기도와 러브소나타 당일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사용할 선물(종이비행기, 야광봉, 마스크, 전단지)을 포장한다. 10월 11일부터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러브소나타 홈페이지(www.lovesonata.org)에서 확인하면 된다.

러브소나타 야마가타 집회는 일본에서 열리는 31번째 러브소나타이다. 코로나19로 인해 1년 연기되었다. 야마가타 현지 실행위원회는 지난 8월 29일 '러브소나타 야마가타 쉼기대회'를 열고 러브소나타 성공 개최와 영혼 구원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했다.

문의: 02-570-7415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

10월 31일까지 수, 토 오전 9시~오후 9시

지난 9월 22일부터 시작된 전 세계 크리스천이 함께하는 낙태 반대 기도운동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이 한창이다. 오는 10월 31일까지 2호선 홍대입구역 3번 출구 경의선숲길 인근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된다.

온누리교회 목회자 및 성도들은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기도 봉사자로 섬기고 있다. 생명의 소중함과 낙태 반대를 호소하는 피켓을 들고 침묵기도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 기도 봉사자로 섬기고 싶은 성도는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에서 신청하면 된다. 타교회 교인은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사이트(www.40daysforlife.com, 02-727-2354)에서 하면 된다.

홍바울 성도는 "성 윤리가 처참하게 무너진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성경적 방향을 제시하기를 기도했다"고 했고, 김유지 성도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이 알려지고, 태아의 생명이 무사히 보호되기를 간구했다"고 소감을 밝혔다(관련기사 2면).

문의: 각 캠퍼스 목회행정실

사르밧 프로젝트 감사의 쌀 수확 준비 중

쌀 2,718포대(20kg) 2,116명에 전달 예정

사르밧 프로젝트 협력 농어촌교회에서 감사의 쌀 수확을 준비하고 있다. 감사의 쌀 2,718포대(20kg)를 대상자 2,116명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사르밧 프로젝트 감사의 쌀 배송은 햅쌀 수확이 시작되는 10월 중순 시작될 예정이다. 오배송 건은 사회선교본부 이웃사랑팀에서 주소를 다시 확인하고 배송한다.

지난 주일(10월 3일)에는 S브릿지공동체, 브릿지33+공동체, 일본어예배 성도들이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동, 보광동, 청파동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을 찾아가 감사의 쌀을 전달했다.

이복순 어르신은 "외로운 사람들을 잊지 않고 찾아와 기도해주고 도움을 주는 온누리교회 성도들 덕분에 살고 있다"고 인사했다. 박원삼 어르신은 "모두가 어려울 때 선뜻 이웃들을 도와주고 위로해줘서 참 고맙다"면서 "온누리교회처럼 나도 나보다 어려운 이웃들을 살피겠다"고 다짐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온누리교회 축복송 및 봉헌송 변경

10월부터 온누리교회 '축복송'과 '봉헌송'이 변경됐다. 축복송은 창조신앙을 강조하는 고백이 담긴 찬양 '형제의 모습 속에' (박정관, F Key)이고, 봉헌송은 이 시대 부흥을 간구하는 고백이 담긴 찬양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부흥)' (고형원, G Key)이다. 국내 10개 캠퍼스 토요일과 일요일 모든 예배에 적용된다. 축복송 '형제의 모습 속에' 가사를 다음과 같이 변경해서 부른다.

"(1절)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2절)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생명을 위한 소중한 한마디

- 태아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들의 존재가 새삼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나와 내 주위의 가족과 친구들, 모든 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 이미희
-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에 참여하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절감합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 되기를 기도합니다. / 권도윤
- 홍대입구역의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에 참석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귀한 태아가 낙태를 통해 죽어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 이수민
- 캠페인 참여 덕분에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사역에 참여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효진
- 부슬부슬 내리는 비, 오고 가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아름다운 생명의 복을 모두가 누리길 기도합니다. / 임훈
- 제공된 기도 제목을 반복해서 읽으며, 저의 지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 홍해남
- 주님께서 보내신 한 생명도 잘못되지 않도록 주여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 김영화
- 누군가에게는 그토록 원하고 바라는 한 생명임을 기억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들을 부어 주시길 기도하였습니다. / 장혜진
- 형록이와 하은이의 결혼을 축하하며, 아이는 생기는 대로 다 낳아 잘 기르자! 할렐루야! / 최미란
- 생명은 소중합니다. 생명은 너무 소중합니다. 태아가 잘 지켜지길 기도합니다. / 서보희
- 짧은 시간이지만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어 보다 뜻 깊었습니다. / 김한수
- 얼마 전 아들과 함께 우연히 보게 된 영화 '엔플랜드'를 통해 기도 캠페인에 동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질서가 무너져가고 있는 요즘, 차세대 우리 아이들에게 생명의 소중함과 올바른 성문화를 알려주고 함께 기도할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 정수련
- 태아도 소중한 생명임을 느꼈고, 엔플랜드 영화에서 정말 너무 기도하던 기독교인들처럼 될 수 있도록 기도하였습니다. / 김시우
- 주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태아의 생명이 죽임당하는 것에 사람들이 더이상 침묵하지 않고, 많은 분들과 한국 교회가 동참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 안숙향
- 하나님의 마음이 영혼과 생명에 있음을 깨닫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도 많이 출산하는 나라 되게 해주세요. / 김도윤
- '생명사랑', '생명존중'이 이 땅 가운데 흘러넘치길 기도했습니다. / 무명
- 우리 모두 태아였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기도 운동이 불같이 일어나 하루 천 명 이상 죽어가는 태아가 0명이 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 신혜용
-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지키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믿음으로 용기 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 무명
-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믿는 저희가 공활한 마음을 품고 서로 돌보는 일에 동참하게 하소서. / 이해승
- 하나님의 일에 동역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주심에 감사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한 생명이라도 살리는 시간이었음을 믿습니다. / 김진희
-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회의 흐름을 깨닫게 하시고, 동참할 수 있는 사역의 기회를 제공해주시는 온누리교회가 자랑스럽습니다. 온누리교회 창립 36주년을 맞아 바른길로 인도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채훈 담임목사님 되도록, 또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 김미가
- 짧은 시간이지만 동참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 박극요
- 현장 기도문으로 기도하며 태아가 생명이라는 인식과 소중함을 깨닫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절이라는 구절에 제 삶을 비취보게 되는 복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 국명정
- 과거에 낙태 경험 있는 잘 모르는 다른 사람들과 과거에 낙태 경험 있는 친척, 그리고 과거에 신생아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모르고 낙태 경험 한 번 있는 우리 엄마를 정죄하지 않고 좋으신 하나님의 좋은 사랑을 잘 알 수 있게 기도합니다. / 김유선
- 기도하는 내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변화될 흥대가 눈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입니다! / 최지연
- 두 아들과 함께 생명 살리는 일에 동참하게 되어 감사드리며,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지키는 일에 헌신하는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 서혜영
- 우리의 기도와 몸짓이 나비효과가 되어 이 땅 대한민국이 태아의 생명을 살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 오금주
- 사랑은 결단하는 것, 내 뱃속에 아기를 품어본 경험이 없기에 태아를 사랑하는 마음은 나에겐 너무 피상적이었다. 하지만 그 대상을 위해 내가 무언가 행하기로 선택한 그 결단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것을 믿는다. 나에게는, 내 또래의 청년들에게도 / 해린이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온누리교회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에 한 줄 소감을 남겨주시면 온누리신문과 온누리교회 SNS 계정(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에 게재됩니다.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교회의 생명력을 가로막은 장벽은 내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것은 전통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심의 율법적인 습관과 경험에 갇혀 있는 세계관이었습니다.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에 가장 힘든 장벽이었습니다. 율법을 넘어 복음의 역사로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 역사의 걸림돌은 완악한 이방인들의 불신과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율법에 익숙하게 살아 왔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고정관념과 율법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왜곡된 사상으로 복음을 오염시킨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더 큰 위기였습니다.

교회 스스로 만드는 두 가지 장벽이 늘 존재합니다. 하나는 역사가 오래되면서 생기는 장벽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교회 공동체 규모가 커지면서 생기는 장벽입니다. 규모가 크든 작든 역사가 오래되면서 생기는 장벽이 있고, 역사와 상관없이 규모가 커지면서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규모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은 어렵지 않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교회 안에 일어나는 장벽이 있습니다. 역사가 흐르면서 경험과 습관에 묶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임재와 말씀의 비전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과거 습관과 경험에 묶임으로 인해서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예루살렘교회 성도들의 모습에서 그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초대교회는 그 장벽을 뛰어넘어 교회 생명력이 더욱 충만해졌습니다. 스테반 집사의 순교를 시작으로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예루살렘교회 성도들은 원하지 않는 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정들었던 공동체를 떠나야 했습니다. 핍박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페니키아, 키프로스, 안디옥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교회 성도들이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함께 성령으로 충만했던 이들이 흩어져야만 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다른 한편으로는 예루살렘교회에 성령이 임해서 믿는 이들이 수천 명씩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제도가 필요했고, 조직화 하는 일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점점 있어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 삼으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의 출

발은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발적으로 가기에는 예루살렘교회 성도들의 공동체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발적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생각해 볼 때 핍박이라는 외부의 환경은 예루살렘교회 성도들이 비자발적이지만 흩어져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말씀이 전파되도록 하는 선교적 교회로 변화시키는 요인이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일로 복음이 확산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이 시대 많은 교회가 왜 교회다움을 잃어버렸습니까? 아무런 핍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핍박이 교회를 더욱 강하게 합니다. 외부의 핍박은 교회를 더욱 강하게 만들 뿐입니다. 문제는 내부의 장벽들입니다. 예루살렘교회 성도들이 흩어져 지상명령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하는데 가로막는 것이 있었습니다. 성도들 간의 사랑입니다. 교회공동체를 통해 얻는 안정감, 축복, 행복, 기쁨입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에 예루살렘교회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 외부적인 핍박을 통해서 그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소수의 성도들과 안디옥교회

“그 무렵 스테반의 일로 인해 핍박을 받아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페니키아, 키프로스 그리고 안디옥까지 건너가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19절).

내부적인 장벽이 일어났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물론 언어와 문화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교회 역사를 통해서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이민자들의 교회에서도 나타납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역사가 오래되어서 이제 그 나라 말도 이해하고, 그 나라 사람들과 친구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같은 종족만 만나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이주민 250만 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대입해보면 10년 후에는 4백만 명, 20년 후에는 500만 명 정도 늘어날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가 예루살렘처럼 유대인들만 모인 사회가 아니라 키프로스와 안디옥처럼 수많은 사람이 모인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 안디옥은 50만 명 인구의 국제도시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다. 그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

는 소수의 성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인 몇 사람은 안디옥으로 들어가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시어서 많은 주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습니다”(20~21절).

유대인만이 아니라 그리스와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시작한 것이 사도행전의 중요한 터닝포인트입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예루살렘교회가 흩어져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며 유대인 방식대로 존재했을 텐데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함으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이방 세계에 복음이 확산하는 중요한 캠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안디옥교회는 흩어진 유대인들 가운데 소수의 몇 사람,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킹덤 파이오니어’입니다. 한국 교회도 여전히 한국 사람들끼리의 교회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온누리교회 체질 자체가 다민족, 다문화로 포용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안디옥교회가 그런 일을 했을 때 주의 손이 함께 하셨습니다. ‘주의 손’이라는 것은 주님의 능력과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셨던 일이기에 능력을 주셔서 안디옥에 믿는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는 단일민족이 아닙니다. 다민족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이주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복음을 온 세상에 확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예루살렘교회를 넘어 안디옥교회로!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전해지자 그들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해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며 온 마음을 다해 주께 끝까지 충성하라고 그들 모두를 격려했습니다. 그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나오게 되었습니다”(22~24절).

하나님께서 제2, 제3의 바나바를 키우시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역사의 주역이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교회는 전통에 묶였지만, 안디옥교회는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될 때 회심한 이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적용할지 연구하는 데 바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디옥교회의 모습이 세계 선교에 쓰입니다. 바나바와

바울 모두가 다양한 문화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한인 디아스포라가 800만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민족을 이해하고, 타민족에 대한 공감과 감수성이 뛰어난 그들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스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하여 바나바와 사울은 1년 내내 그곳 교회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제자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25~26절).

바울과 바나바의 동료 관계를 보십시오. 팀워크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적 교회, 킹덤 파이오니어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는 나보다 사역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세우고, 동역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인격적인 신뢰와 동역이 참된 그리스도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 결과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 스스로 만든 명칭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는 단어입니다.

온누리교회에는 킹덤 파이오니어, 하나님 나라 개척자의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유명한 신학자이자 인도에 수십 년 동안 사역하신 선교사님이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교회가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두 가지 증거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 교회와 선교회를 다른 공동체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둘째, 선교회의 사명을 교회 내부적인 필요를 채운 다음 여력으로 하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선교에 최우선 순위를 가지는 교회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교회의 본질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는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교회가 예루살렘교회를 넘어 안디옥교회로 확장되어가는 모습에서 교회와 선교, 공동체와 선교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 되었습니다. 성도를 돌보는 일과 복음을 전하는 일이 동시적입니다. 안디옥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렸던 교회의 모습이 온누리교회가 창립 36주년을 맞이하면서 킹덤 파이오니어 스피릿을 다시 새롭게 하는 성경적 근거가 된다고 믿습니다. 온누리교회가 킹덤 파이오니어로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도전하고, 그 사명을 완수하는 일에 모든 것을 헌신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보석보다 귀한 만남 ‘믿음의 선배들’ 유관순 열사 순국 101주기

열일곱 소녀의 기도 그리고 나라 사랑

나라와 민족을 위한 애끓는 통곡 ‘유관순 열사’



독립운동가 유관순(1902~1920)

“오오, 하나님이지이여 이제 시간이 임박하였습니다. 원수 왜(倭, 일본)를 물리쳐 주시고 이 땅에 자유와 독립을 주소서. 내일 거사할 각 대표에게 더욱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이곳이 이 민족의 행복한 땅이 되게 하소서. 주여 같이 하시고, 이 소녀에게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대한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

일제강점기 아우내 3.1만세운동을 하루 앞두고 열일곱 한 소녀가 산에 올라가 드린 기도예요. 이 기도의 주인공

은 바로 독립운동가 유관순 열사입니다. 지난 9월 28일은 유관순 열사 순국 101주기였는데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고, 목숨마저 아끼지 않았던 유관순 열사를 소개하고 싶어요.

유관순 열사는 1902년 12월 16일 충남 천안시에서 5남매 중 둘째 딸로 태어났어요. 할아버지와 작은아버지가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온 식구가 신앙을 갖게 되었어요. 1918년 교회 봉사를 하고 있던 유관순 열사는 지역 순회를 돌던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이화학당 고등부에 장학생으로 입학했어요. 유관순 열사는 이화학당을 다니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성경을 읽고, 하루도 빠짐없이 교회에 와서 태극기를 가슴에 품고 조국의 독립과 민족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어요.

“주님, 우리는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나라를 빼앗기고 이렇게 시달리는 슬픈 민족이 되었습니까? 저희를 버리지 마시고 도와주세요. 주님, 어린 소녀에게도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자혜를 주십시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괴로워도 참고 이겨내겠습니다.”

날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던 유관순 열사는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일어난 만세운동(3.1운동)에 친구들과 함께 결사대(죽기를 각오하고 있는 힘을 다할 것을 결심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부대나 무리)를 조직해 참여했어요. 그리고 3월 10일 독립선언서를 숨겨 고향으로 내려가 아버지와 가족들, 그리고 매봉교회 교인들과 함께 만세시위를 준비했어요. 이것이 아우내 3.1만세운동이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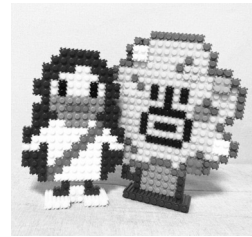
1919년 4월 1일 아우내 3.1만세운동에는 3천 명의 사람들이 함께 시위했어요. 이날 시위에서 유관순 열사의 부모님은 유관순 열사 눈 앞에서 일본 헌병의 총탄을 맞아 사망하였고, 유관순 열사도 현장에서 체포되었어요. 그 두렵고 떨리는 상황에서도 유관순 열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듬해인 1920년 3월 1일 옥중 만세운동을 주도했고, 그 때문에 더욱 잔인한 고문을 당하게 되었어요. 유관순 열사는 감옥에서 끔찍한 고문을 당하면서도 기도를 쉬지 않았어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수감자들과 나라의 독립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유관순 열사는 그해 9월 28일 감옥에서 숨을 거두었어요. 유관순 열사는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고통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를 위해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많은 것들은 믿음 선배들의 기도와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이예요. 유관순 열사의 기도를 읽으며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시간을 가져보아요. 또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를 위해, 소중한 나라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내 손으로 만드는 성경이야기 ‘디폼블럭’



가족과 친구와 함께하면 재미있는 놀이를 소개하고 싶어요. 디폼블럭 만들기 인데요. 6mm, 8mm, 10mm의 작은 블럭으로 다양한 캐릭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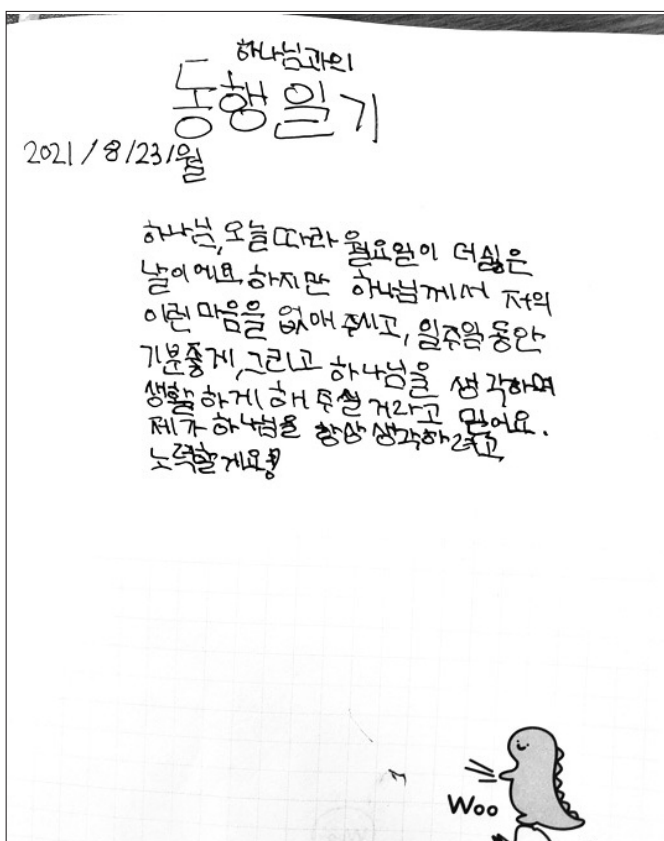
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 인물을 만들 거예요.

디폼블럭으로 만들 수 있는 성경 인물들이 정말 많아요. 예수님, 마리아, 다윗, 바울, 요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맺히는 나무, 십자가 등 다양한 캐릭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디폼블럭 상자에는 캐릭터를 만들 수 있는 작은 블럭들과 도안이 들어있어요. 도안 위에 블럭들을 올려서 맞추면 쉽게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블럭 크기가 작으니까 입에 넣지 않도록 조심해주세요.

성경이야기 캐릭터를 만들 수 있는 디폼블럭은 두란노문고에 가면 만날 수 있습니다. 가격은 작은 상자 4,000원, 큰 상자 5,600원이에요.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만들어보세요. 디폼블럭으로 만든 성경이야기 캐릭터를 사진으로 찍어 메일(hha0@onnuri.org)로 보내면 어린이신문 <우리들 작품> 코너에 실리고, 소정의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 홍하영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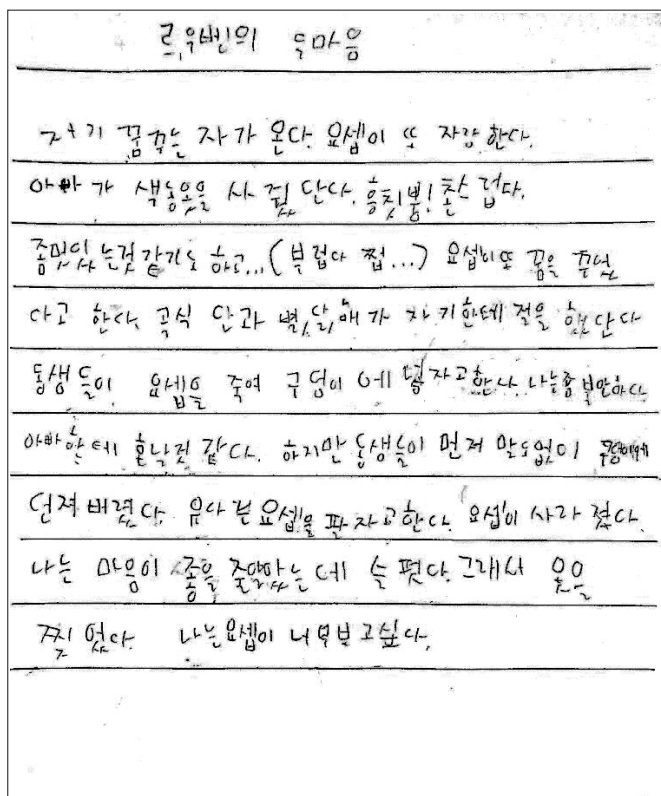
우리들 작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삶〉

하나님께서 저와 항상 같이 계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으로 썼어요!

/ 김시연 학생(부천온누리교회 꿈땅)



〈르우벤의 두 마음〉

요셉이야기를 읽으면서 장자였던 르우벤이 느꼈을 것 같은 마음을 글로 적어봤어요. 저도 여동생이 더 사랑받는 것 같아 속상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르우벤도 그럴 거 같았어요!

/ 임이삭 학생(양재온누리교회 꿈땅)



글그림 명난희

7. 믿지 않는 친구위해 기도해요



도전하는 청년 응원 프로젝트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영과 육 살리는 의사

의료선교사 꿈꾸는 곡성군 공중보건의 박한영 형제

경기불황, 좁은 취업문, 설상가상 코로나19 팬데믹까지... 가뜰이나 우울한 청년들의 앞날에 먹구름이 가시지 않고 있다. 이 어려운 와중에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청년들이 있다. '도전하는 청년 응원 프로젝트'는 하나님의 비전과 목표, 젊음과 패기로 끝까지 도전하는 크리스천 청년들을 응원하는 코너이다. 그 네 번째 주인공은 전라남도 곡성군에서 공중보건의사로 군복무 중인 박한영 형제(서빙고온누리교회)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의료선교사를 꿈꾸며 기도하고 일하는 공중보건의사 '박한영 형제(서빙고온누리교회)'.

전라남도 곡성군 시골 마을에 예수님과 사랑을 너무 사랑하는 청년 의사가 있다. 곡성군에서 공중보건의사(병역의무 대신 3년 동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구에서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하는 의사)로 군복무(軍服務) 중인 박한영 형제(서빙고온누리교회)다.

곡성군이 한적한 시골 마을이라 일이 편할 거로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다. 어르신들이 많은 만큼 진료 보는 일이 그만큼 많고, 해야 할 일도 많다. 요즘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더욱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한때 코로나19 청정지역이라 불리던 곡성군에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퍼졌기 때문이다. 의료시스템이 잘 갖춰지지 않은 곳이라 초반에는 몇백 명의 검사를 혼자 진행했던 일도 있었다. 피곤하고 지칠 법도 한데 박한영 형제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을 보살피고 돕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힘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자리를 제게 맡겨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서럽고 외로웠던 선교지가
안타깝고 소중한 곳으로!**

늘 감사를 고백할 줄 아는 박한영 형제의 믿음은 선교사인 부모님(말라위 박일구, 신인순 선교사)께 물려받았다. 부모님 밑에서 신앙을 배우고 믿음을 키웠다.

“부모님은 열악한 선교지에서 한 번도 불평하시는 적이 없으셨습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선교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시면서 학교와 교회를 건축하시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셨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과 사랑을 사랑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배운 것 같습니다.”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는 부모님이 곁에 있었지만 어린 나이에 선교지에서 적응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어린 박한영 형제에게 선교지는 친구 한 명 없고, 말이 통하지 않는 서럽고 외로운 곳이었다.

“초등학교에 입학 한 지 3개월 만에 선교사 파송을 받으신 부모님을 따라 이스라엘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처음 다녔던 학교에는 동양인이 저밖에 없어서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조금 익숙해질 무렵 부모님께서 스리랑카로 사역지를 옮기셨습니다. 그 다음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다음은 모잠비크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말이 잘 통하

지 않았고, 선교지를 자주 옮긴 탓에 친구 사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때는 그 상황이 참 서럽고 외로웠습니다.”

열악한 선교지 환경도 참 불편했다. 내전(內戰) 상황이었던 스리랑카에서는 아찔한 순간도 많았다. 학교 근처에서 폭탄이 터지기도 하고, 마을 곳곳에서 폭탄 테러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열악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생활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정말 많이 쏟아냈다.

“가는 곳마다 환경이 너무 열악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곳에 와서 이렇게까지 고생해야 하나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많이 토로했습니다.”

그런데 외롭고, 불편하고, 무서웠던 선교지가 점점 안타깝워졌다. 선교지와 현지 사람들이 궁금해졌다. 조금씩 선교지의 현실이 눈에 들어왔다.

“건축가이신 아버지는 선교지 곳곳을 다니시면서 교회와 학교를 지으시고, 마을 사람들의 집을 살피주셨습니다. 저도 종종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일을 도왔는데 열악한 선교지 환경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들의 사정이 궁금해지기도 했고요. 특히 의료 시설이 잘 갖춰져 있지 않아서 작은 병에도 목숨을 잃는 사람들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선교지를 위해 헌신하시는 부모님의 마음이 이해되더라고요. 그때부터 부모님의 선교지가 아니라 제게도 소중한 선교지가 되었습니다.”

“크리스천이 그래도 됩니까?”

선교지를 품고 기도하면서 꿈이 생겼다. 의사가 되어서 어려운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섬기고 싶었다. 그런데 그 길이 쉽지 않았다. 영국, 싱가포르, 홍콩 등 스리랑카 주변 나라 의과대학에 원서를 넣었는데 번번이 떨어졌다. 삼수 끝에 한동대학교 생명과학부에 진학했다. 그때 정말 크게 좌절하고 낙담했다.

“의대에 진학하지 못하면서 제 꿈이 좌절된 것만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생각했는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낙심하는 마음이 정말 컸습니다. 그런데 돌아해보니 한동대학교에서 보낸 시간이 제게 꼭 필요했습니다.”

한동대학교에서 보낸 4년은 하나님께서 박한영 형제를 만나주시는 시간이었다. 하나님께서 낙심하고 실망한 박한영 형제를 찾아오셨다.

“처음에는 학교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나태하고 우울한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예배도 점점 소홀히 하게 되고, 말씀과 기도를 멀리했습니다. 그렇게 방황하던 중에 우연히

과 선배의 권유로 새벽기도 공동체에 들어갔습니다. 매일 아침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수록 의료선교에 대한 마음이 다시 커졌다. 몸은 한국에 있는데 마음이 자꾸 선교지로 향했다. 고민 끝에 졸업을 앞두고 진로를 다시 바꿨다. 의사가 되기 위해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했다.

“진로를 정해야 하는데 의료선교에 대한 마음이 사그라지지 않더라고요. 마침 의학전문대학원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돌아오긴 했지만 더 간절한 마음, 더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룰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을 앞둔 지난해 2월, 우리나라에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하기 시작했다. 병역법에 따라 박한영 형제가 공중보건의사로 군복무를 해야 하는 시기였다. 주변 사람들은 걱정 어린 마음에 군복무를 미룰 수 없는지, 조금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없는지 물었다. 그때 박한영 형제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저를 걱정해주시는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웠지만, ‘크리스천이 그래도 됩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크리스천이라면 그해서는 안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피하는 곳, 도움이 더욱 절실한 곳을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선교지에 간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파견을 받았습니다.”

경상남도 거창군에 설치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박한영 형제의 첫 번째 복무지였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는 시기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코로나19 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시기라 어려움도 많았다. 박한영 형제가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환자가 작년 한 해에만 3~4천 명이나 된다. 그만큼 몸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감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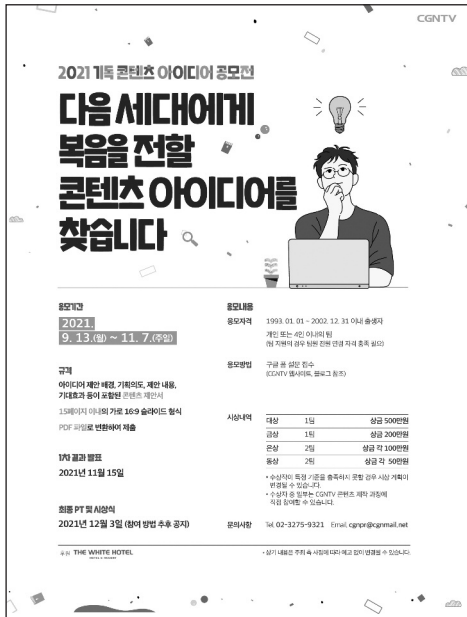
“몰려오는 환자들을 돌보면서 지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편에 늘 감사가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꼭 와야 하는 이 자리를 제가 섬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환자 한 명 한 명 진료할 때마다 그들의 영혼과 육신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돌봐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박한영 형제는 오늘도 바쁘다. 그래도 감사하고 웃음이 나는 이유는 의료선교사라는 꿈에 한 발자국씩 다가가고 있기 때문이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그를 위해 기도해줬으면 좋겠다.

“아직 해야 할 공부도 많이 남았고,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한 걸음씩 성실하게 가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의사, 복음을 전하는 의사, 환자의 영과 육을 살리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기도해주시지요.”

기독교콘텐츠 아이디어 공모전 및 성경암송퀴즈쇼

11월 7일까지 공모전, 10월 22일까지 암송대회 사전참가자 모집



CGN TV가 기독교콘텐츠 아이디어 공모전과 성경암송퀴즈쇼를 개최한다.

기독교콘텐츠 아이디어 공모전은 다음세대에게 복음

을 전할 콘텐츠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된다. 개인 또는 4인 이내 팀으로 참가할 수 있다(1993년 1월 1일~2002년 12월 31일 출생자만). 아이디어 제안 배경, 기획 의도, 제안 내용, 기대 효과 등이 포함된 콘텐츠제안서를 16:9 형식의 슬라이드 15페이지 이내로 작성해서 11월 7일까지 아래의 QR 코드로 접수하면 된다. 실현 가능성, 실효성, 독창성, 작품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대상 500만 원, 금상 200만 원, 은상 100만 원, 동상 50만 원의 부상을 수여한다. 11월 15일 1차 결과를 발표하고, 12월 3일 최종 PT와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성경암송퀴즈쇼 ‘태초부터 아멘까지 바이블킹’은 성경 암송과 퀴즈를 푸는 대회다. 성경 암송과 퀴즈를 출제하는 성경 구절은 기독교 OTT 풍당 콘텐츠 ‘톨레레게’ 전편에서 발췌한다. 10월 22일까지 CGN TV 웹사이트에서 사전 참가자를 모집한다. 예선, 본선, 결선 경선을 거쳐 우승자를 선발한다. 자세한 대회 일정은 추후 공개할 예정이다.



접수 QR코드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결혼을 하나님 시각으로 바라보자!”

2021 온라인 결혼 문화 세미나

지난 10월 2일 크리스천 결혼문화 팀(가정사역본부)이 ‘2021 온라인 결혼 문화 세미나’를 온라인(Zoom)으로 개최했다. 결혼을 앞둔 청년, 결혼 할 자녀를 둔 부모 110명이 참여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기복 교수(두란노 가정상담연구원 원장) ‘건강하고 바른 결혼문화 제시(결혼의 방향과 혼수 준비)’, 강미향 목사(가정사역공동체)가 ‘크리스천 결혼문화의 실제’를 주제로 강의했다.

이기복 교수는 미혼 청년들에게 “

날마다 선보고 있다는 생각으로 자신을 가꾸고, 타인을 배려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이타적 성품을 만들라”고 당부했다. 부모들에게는 “외적인 조건에 휘둘러 함부로 반대하지 말고, 마음을 열고 틀을 바꿔 자녀의 결혼을 지지하라”고 조언했다.

강미향 목사는 “세상과 나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결혼을 바라볼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하나님 안에서 연애 잘하는 방법!

‘청춘 클래스’ 11월 6일부터 매주 오후 1시

하나님 안에서 연애 잘하는 방법이 궁금한 청년들을 위한 세미나가 열린다. 가정사역본부 행가레팀, 크리스천 결혼문화팀이 공동주최하는 ‘청춘 클래스’다. 11월 6일과 13일, 12월 18일 오후 1시 30분 온라인(Zoom)과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오프라인 장소는 참가자들에게 공지된다. 참가 신청은 10월 17일까지 네이버 폼(하단 QR 코드 참고)으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남녀 청년 각 25명씩 선착순 모집한다. 회비는 3만 원.

청춘 클래스는 크리스천의 연애와 소통, 배우자, 결혼을 주제로 강의를 듣고 나누며 자연스러운 만남의 장을 열어주는 과정이다. 문의: 네이버 카페 ‘청춘 클래스’(cafe.naver.com/youthclass)



접수 QR코드

10월 화요성령집회 ‘복음의 발견’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 본당

대학청년부 10월 화요성령집회 ‘복음의 발견’이 한창이다.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예배를 드린다. 10월 5일 이서진 목사 ‘사랑이 구원의 이유입니다’(요 3:16~18), 12일 김승수 목사 ‘믿음이 성도의 능력입니다’(롬 1:8~17), 19일 최성민 목사 ‘

성령은 은혜의 선물입니다’(행 2:36~41), 26일 김승수 목사 ‘교회가 세상의 소망입니다’(마 16:13~19)를 주제로 말씀을 전한다.

화요성령집회에 참석을 원하는 청년들은 온누리교회 예배예약시스템에서 반드시 예배 예약을 해야 한다.

젊은부부학교 52기 참가자 모집

10월 16일부터 매주 토 오후 1시 온라인

젊은부부학교 52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10월 16일부터 11월 6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서 ‘온누리 젊은부부학교’를 검색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회비는 가정 당 10만 원이

다. 10월 9일까지 회비를 입금하면 2만 원 할인해 준다.

젊은부부학교는 하나님의 가정원리를 통해서 축복의 가정을 세우도록 돕는 과정이다.

문의: 남편: 010-3476-7716

아내: 010-4827-5298



야마가타 기 · 도 · 제 · 목

- 10월 11일(월) 영적인 일치와 구원이 일어나는 러브소나타 되게 하소서
- 10월 12일(화) 모든 출연자와 예배팀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 10월 13일(수) 코로나19의 위협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 10월 14일(목) 이원생중계 기술적 문제가 잘 해결되도록
- 10월 15일(금) 성령으로 하나 되는 가스펠나이트가 되도록
- 10월 16일(토) 초청받은 이들에게 구원의 방주 되는 러브소나타 되도록
- 10월 17일(일) 실행위원과 스태프들이 물 떠온 하인의 마음으로 준비하도록

온누리통일학교 수강생 모집

통일위원회에서 온누리통일학교 기본과정 1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10월 23일부터 12월 4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수강신청은 구글 폼(하단 QR 코드 참고)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문자메시지로 등록하면 된다. 문자메시지로 등록할 때는 이름, 소속, 출생연도를 꼭 기록해야 한다. 회비는 교재비 포함 2만 원이다.

온누리통일학교는 통일과 관련된 주제로 강의와 토론회가 이어진다.

문의: 010-4337-5927



접수 QR코드

90일의 기적 성경완독자 성경책 수령

‘모바일성경쿠폰’ 보여주고 성경책 수령

지난 1월 4일부터 4월 3일까지 진행된 ‘90일의 기적 성경일독’ 완독자들에게 성경책(선물)을 나눠준다. 서빙고온누리교회는 10월 9일과 10일, 17일, 양재, 부천, 수원, 대전, 인천, 강동온누리교회는 10월 9일과 10일 지정된 장소에서 성경책을 나눠준다. 남양주, 평택, 양지, 서산온누리교회는 자체 배부한다. 지난 5월 초 교회

에서 완독자 스마트폰으로 전달한 모바일성경쿠폰을 보여주고 성경책을 수령하면 된다. 주일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은 택배로 성경책을 받을 수 있다. 두란노서점 온라인스토어(www.duranno.com/store/onnuri)에서 신청하면 된다. 택배비는 별도 문의: 02-796-2310

/ 정현주 기자

아름다운동행 참가자 모집

10월 16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온라인

아름다운동행 커플링 지원자반 참가자를 모집한다. 10월 16일부터 12월 4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수강신청은 10월 11일까지 아이스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교재비 포함 가정 당 5만 원이다.

김설희 성도는 “아름다운동행에 참가하고 나서 남편과 평소 나누지 못했던 깊은 대화들을 나누고, 서로

에 대해 알아가며 회복하는 시간을 보냈다”고 고백했다.

아름다운동행은 부부의 정서적 친밀감을 누리고, 성경적 가정원리로 새로운 가정관을 정립하도록 돕는 과정이다. ‘길을 떠나는 나에게’, ‘새로운 피조물’, ‘Finding Self’, ‘배우자 바로 알기’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문의: 010-9041-5538

파워임팩트(POWER IMPACT) 참가자 모집

청소년·부모 성장학교 ‘파워임팩트(POWER IMPACT)’에서 참가자를 모집한다. 청소년반은 11월 13일부터 12월 18일까지(7주 과정), 부모반은 10월 30일부터 12월 18일까지(8주 과정)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11월 06일까지 아이스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참가 대상은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및 신청 학생의 부모이다. 문의: 02-793-9686

드림어게인스쿨 참가자 모집

드림어게인스쿨 참가자를 모집한다. 10월 23일부터 11월 20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수강신청은 10월 22일까지 아이스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40명 선착순 마감한다. 회비는 4만 원이다.

드림어게인스쿨은 이혼의 충격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미래의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기쁨의 회복’, ‘자아상 회복’, ‘못다한 우리들의 이야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문의: 010-2539-5665

